

2022. 12. 19.(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심재욱

2133-8400

복합개발계획팀장

정중규

2133-8414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담당자

박현일

2133-8454

서울시, 타 지역 출신 대학생 위한 첫 '연합기숙사' 건립 본격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용산구 신계동 철도 폐선부지에 600여 명 수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 사립대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인 월 15만 원...대학생 주거안정 기여 기대
- 저층부엔 서울형 키즈카페 등 주민편의시설...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 목표

- 용산선 폐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된 철도 폐선부지에 오는 2024년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내에 건립하는 첫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사립대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인 월 15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철도 폐선 부지 3,698㎡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 해당 부지는 지하철 4·6호선이 교차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국유지다. 철도 폐선 이후 오랜시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허가 건축물과 쓰레기 투기 문제도 빈번했다.

- 서울시는 기숙사 건립 부지 확정을 위한 후보지 검토를 지원하고,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22. 12. 고시 예정)을 완료했다. 기숙사 건립은 한국장학재단이 약 4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약 400억 원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원전 소재 4개 지역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출신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대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건립을 통해서 서울시내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하 3층~지상 15층(연면적 약 1만 m^2)으로, 총 600여 명(299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대학생들을 위한 공동주방과 커뮤니티실 등도 배치해서 생활편의를 높인다. 기숙사비는 월 15만 원으로, 평균 30~40만 원 선인 서울시 내 사립대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다.

- 건물 저층부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체육시설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해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로 조성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타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본격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대학안팎의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고

‘대학생 연합기숙사’ 공간 개요

위치도



조감도(예시)



세부시설

○ 층별 공간구성



12~15층 기숙사실, 커뮤니티실(14~15층)

8~11층 기숙사실, 공유주방(9~11층)

3~7층 기숙사실, 멀티미디어실(5~6층)

2층 서울형 키즈카페

1층 주민개방시설 및 운영사무실

B1~B3층 주차장(기계식) 및 기계실 등

○ 부대시설 및 주민개방시설(예시)



〈 공유주방 〉



〈 커뮤니티실 〉



〈 서울형 키즈카페 〉



〈 공공도서관(미정) 〉